

12월의 사양관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 상 균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도서지역과 부산을 비롯한 남부해안지역에서 월동포장을 하지 않은 봉군은 이달 중에 포장을 해주면 되겠다.

월동포장의 적기는 그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되겠고, 대개 그 지역의 김장 담그는 시기가 적절한 월동포장 시기가 되겠다.

1. 겨울철의 관리

이달부터 겨울철로 접어들게 되는데 겨울철에 특별히 관리할 것은 없지만 가끔 봉장에 가 보아 살펴보면 되겠다.

우선 보온물이 바람에 날렸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출입구 앞을 자세히 살펴보아 죽은 벌이 있는지 소문이 죽은 벌이나, 낙엽이나 쥐나 두더지로 인하여 흙으로 막혀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벌이 출입구에 나와 있는 벌이 있는지 살펴본다.

죽은 벌로 막혀 있을 때는 굽기가 3~4mm 정도 굽기의 철사를 끝 쪽에 2~3cm 정도를 기억자 모양으로 구부려서 죽은 벌을 긁어 내 주면 되겠다.

이때 벌통에 충격을 주면 벌들이 소동을 하게 되므로 가급적 충격을 주지 않도록 사뿐히 빼 내 주는 것이 좋다.

쥐나 두더지 때문에 흙으로 소문이 막혀 있을 때는 흙을 제거해 주면 되겠는데 날씨가 벌이

출입할 정도로 따뜻할 때 오래 막혀 있었을 경우에는 소동을 하여 벌이 많이 죽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사를 가지고 죽은 벌을 긁어내 주어야 하겠다.

특히 소문 앞을 내려 덮었을 경우에 쥐가 소문 앞에서 많이 서식하게 되므로 쥐약을 군데 군데 놓아 주던지 끈끈이를 쥐가 다니는 통로에 놓아 주어 잡아 주어야 하겠다.

두더지가 있을 때는 잡기가 어려운데 두더지 잡는 기구도 철물점에 가면 파는 것이 있으므로 심할 경우 땅이 얼지 않는 곳에 설치하면 되겠다.

소문 앞에 죽은 벌이 유난히 많은 경우에는 갓 장의 봉구 진 쪽 벌이 식량이 적어서 굶어 죽는 경우와 전체가 도봉으로 인하여 식량부족으로 아사되는 경우에 죽은 벌이 많게 된다. 이때는 보온물을 제거하고 남은 벌을 옆 봉군에 합군해 주든가 벌만 털어서 합군해주면 되겠는데 날씨가 추워서 털어 준 벌이 기어 올라올 정도가 못 될 때는 토치램프 같은 것으로 약간 멀리 띄워서 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어 기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백열전구를 검정 스프레이 같은 것으로 전구를 검게 칠하던가 면장갑을 씌워서 소상 뒷쪽에 불을 켜서 넣고 개포 위에 신문지 등을 한 겹 덮어주면 따뜻하여 소상에 떨어져 기절하였던 벌도 다시 살아나 기어 올라오게

된다.

또한 연기가 나오지 않는 숯을 혼연기에 담아 벌 있는 곳에 적당히 혼연을 하여 열기를 뿜어 주든가 혼연기에 남아있는 탈 수 있는 것은 빼내고 열기가 있는 상태로 혼연하듯 하면서 열을 뿜어 주어도 되겠다.

이때 전구를 너무 오래 켜두면 기존 봉구 쪼던 벌이 퍼지게 되어 좋지가 않으므로 기절한 벌들이 회복되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스스로 열을 내게 되므로 봉구 진 쪽에 불을 정도면 열을 제거해 주어야 하겠다.

벌들이 밀집하여 붙어 있어 여왕벌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데 그대로 합군해도 추울 때라서 싸움을 하지 않게 되므로 찾아지면 죽이고 못 찾으면 그대로 합군하면 되겠다. 왕이 두 마리가 되면 봄에 때론 같이 공생하기도 하지만 한 마리를 죽이던가 둘이 싸움을 해서 한 마리를 죽이게 된다.

소문 앞에 다른 봉군은 추워서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한 두통이 유난히 벌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개 여왕벌이 멸실되어 없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벌들은 불안하여 봉구가 풀려 있게 되므로 이때는 약군이나 옆 벌통에 소비체 넣어 합군하던지 벌을 털어 주면 되겠다.

무왕이 오래 지속된 벌은 벌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 체력 소모가 되어 늙기도 하지만 식량을 많이 먹어서 소비에 식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는 벌만 털어서 넣어 주어야지 소비체 넣어 주면 절량될 수가 있게 된다.

2. 추가보온

이달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찾아오게 되는데 때로는 중순쯤에도 한파가 오게 된다. 양봉인들은 대부분 11월경에 월동포장을 한 번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보온을 더 해주려고 하지 않게 되는데 월동포장을 할 당시의 온도가 영하권이라고 하더라도 한파가 와서 영하 10도 이상 되게 되면 적어도 10도 이상의 온도차가 발생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정도 온도차가 되어 추워지면 집에 난방도 올리게 되고 내복도 찾아 입고 오바나 코트나 스웨터도 입으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추가로 옷을 입게 된다.

과거 한우를 한두 마리 기를 때 한파가 오면 가마니를 펴서 등 쪽에 덮어 주기도 하였는데

양봉인들 대다수가 벌한테는 추가로 더 옷을 입히려고 하지 않게 되다보니 필자가 처음으로 추가보온이라는 말을 오래 전부터 사용하면서 한파가 올 때 추위를 막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벌들의 적절한 월동 적온은 4℃ 내외가 되게 되는데 이보다 -10~-15도 이상 차이가 나면 벌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좀 더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되는데, 봉구를 좀 더 작게 뭉쳐서 벌들이 촘촘히 모여서 체온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

봉구의 온도가 바깥쪽은 6~7℃, 내부 쪽은 15~18℃, 중심부는 32℃ 정도의 열이 나게 되는데 봉구 안쪽보다는 갓 쪽이 더 촘촘히 벌이 뭉쳐서 내부의 열이 봉구 바깥쪽으로 빠져 나가는 틈새를 줄이기 위해서 봉구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벌들은 위낙 추워서 봉구 갓 쪽 온도가 6~7℃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갓 쪽 벌이 얼어 죽게 되므로 이러한 정도가 되면 벌들은 몸을 움직여 얼어 죽지 않으려고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체력소모가 따르다 보니 벌도 늙을 뿐만 아니라 식량소모도 많아지게 되어 결국 양봉인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몇 년 전 조합일이 바빠서 미처 포장을 못해 주었는데 갑자기 한파가 와서 일기예보만으로 다음날 아침 기온이 영하 9℃ 정도일 때 포장을 못해준 상태에서 스티로폼 벌통 뚜껑이 바람에 날려서 저녁에 11시 경에 가보니 개포도 없는 상태에서 봉구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봉구 상태에서 갓 쪽에 있는 벌들이 몸을 움직이는 데 대 다수의 봉군에서 발견되었다. 나도 처음 이러한 것을 목격하여 신기하게 느껴져 후래쉬로 비추어 유심히 살펴보니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느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영하 13℃ 정도가 되면 봉구 갓 장에 조금씩 붙어 있는 벌이 죽었 낙봉이 많아지는 것을 보아왔다.

벌의 생리로 보았을 때 벌한테도 한파가 올 때는 추가보온을 해주는 것이 사람이 옷을 더 입어 추위를 견디는 것과 같이 보온을 더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추가보온은 우선 개포 위에 보온덮개 개포를

덮지 않은 봉군은 뚜껑을 살짝 열고 보온덮개 개포를 한 장 덮어주면 좋은데 보온물을 전부 제거하기 보다는 앞쪽만 뚜껑 위로 들어 놓고서 20cm 정도 되는 막대기를 준비하여 뚜껑을 들고서 받쳐 놓고 그 사이로 개포를 넣어 손으로 펴서 덮어주면 되겠는데 보온덮개가 상당한 보온 역할을 하게 되므로 너무 일찍 서둘러 해주면 봉구가 늦게 형성되게 되므로 초기에 월동포장을 할 때는 덮어주지 말고 이달 중에 영하 5℃ 정도 될 때쯤부터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된다.

외부에는 보온덮개를 가지고 펴서 출입구 아래 땅까지 덮어지게 해주면 되겠는데 보온상태에 따라서 추위를 가감하여 어느 정도 한파는 한 겹만 추가해주면 충분하지만 영하 15℃ 이상 20℃ 정도 되면 두 겹 정도 더 덮어 주는 것이 좋다.

몇 년 전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눈도 많이 오면서 영하 20도 내외가 여러 날 지속되었을 때 그해 추워서 감봉이 많이 되었는데 심한 피해를 입은 봉군은 절반 내지 2/3까지도 죽은 봉군이 많았다.

필자도 경기도 북쪽지역 기후와 비슷한 곳에 놓았었는데 눈은 별통 뚜껑 높이까지 쌓여 있고 눈이 많아 치울 수도 없어서 별통 뚜껑 위에 있는 눈만 대충 치우고서 보온덮개 남은 것과 부족한 것은 사서 두 겹씩 더 덮어 주었는데 전체가 6겹 정도 덮어 준 상황이었었는데 소문 앞에 최고 최저 온도계를 넣어 주고서 한번씩 가 볼때마다 체크해 보았는데 외부온도는 영하 20도라고 하더라도 소문 앞 온도는 영상 3~4℃가 유지되었다.

월동이 예년과 다름없이 나는 냇지만 이때 추가보온을 해주지 못한 사람은 식량도 많이 먹고 부분 아사가 많이 되어 많은 봉군 손실을 입었는데 보온덮개 한두 겹 더 덮는데 들어간 돈은 100군 덮는데 10만 원 정도 추가 들어간 비용밖에 없는데 손실의 차이는 수십 배 이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벌의 생리를 알아서 추가보온은 어느 정도 해주어야 좋을지는 온도계를 놓고서 체크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월동시 보온덮개를 전면까지 오래 내려주면 전면의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게 되어 그 습기가 빠지지 못하고 별통 안으로 스며서 월동식

량이 묽어져 설사병이 걸리는 원인이 되게 되므로 겨울철 내내 전면을 가려 주려고 할 때는 소문 앞에 비닐을 반드시 깔아 주어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하겠다. 가려주는 재료는 보온덮개보다는 짚으로 덮어 주는 것이 환기도 되면서 복사열도 생기지가 않아 좋은 편인데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한파가 올 때만 잠시 내려 주는 것은 괜찮으므로 굳이 비닐을 깔아주지 않아도 되겠는데 전면을 걷어 주는 시기를 잘 선택하여 걷어 주어야 하겠다.

벌들은 겨울철에 추운 날씨라도 벌통 내부가 갑자기 환해지면 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 예로 눈이 오면 햇벌이 반사되어 벌통 안이 밝아서 벌이 나와서 눈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보온덮개로 출입구를 막아 주었다가 낮에 갑자기 걷어주면 눈이 온 상황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추운 날씨에 벌이 갑자기 나와서 죽는 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녁에 걷어 주어 벌들이 밤사이 외부온도에 충분히 적응한 다음 낮에 나올 수 있는 기온이면 나오게 추우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피해가 없게 된다.

한파가 왔다가 지난 다음 기온이 풀렸을 때 저녁에 걷어 주면 되겠다.

일부 양봉인 중에는 소문 앞쪽을 완전히 막아서 환기가 안 되어 벌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기류는 추운데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겨울철 추운 날 창문을 약간만 열어 놓아도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처럼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벌들한테 보온덮개를 내려 덮어도 툼툼이 혹은 보온덮개 털 사이로 약간의 바람이 왕래할 곳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된다.

필자는 겨울동안 보온덮개를 땅까지 두 겹 정도를 내려서 덮어 수년간 월동을 내어 보았는데 환기로 인한 피해는 느껴보지는 못했고 단지 습기가 많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겨울철 전면을 가리지 않은 봉군과 전면을 가리고 월동을 낸 벌과의 차이는 봄벌 수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전면을 가렸던 봉군은 겨울철에 죽을 벌이 죽지 않고 봄까지 살아 주어서 그런지 봄에 수명이 약간 짧

게 뒀을 볼 수가 있다.

환기는 외부온도와 보온덮개 안쪽 온도와 차이가 별로 없을 때가 기류의 이동이 안 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전면을 내려 덮어 주지 않는 것이 좋다.

겨울철이라도 전면을 내려 덮어 주게 되면 보온덮개가 복사열에 의하여 따뜻해서 내부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침엽수 그늘 속에 벌을 놓았을 때나 내려 준다든가 채광망을 보온덮개 위에 덮어 주어 복사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양지에서 보온덮개를 내려 덮을 때는 전면을 1 ~ 2겹만 덮어야지 3겹 정도를 내려 덮으면 환기에 지장이 오고 벌이 더워서 소문 앞에 미치는 경우도 있게 된다.

3. 쥐 피해 방지

쥐가 구멍을 파기 위하여 흙을 소문 앞을 막아서 피해를 준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피해가 큰 것은 조그마한 산쥐가 소문 안으로 들어가 소비에 있는 꿀이나 화분을 파먹게 되고 또한 벌까지 잡아먹게 되는 경우 더 피해가 많게 된다.

봉구가 형성된 곳에 쥐가 많이 다니면 봉구가 풀린다든가 벌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 벌이 늙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된다.

산 아래쪽 산쥐가 많은 곳에 벌을 놓을 경우에는 소문 높이를 낮추어 줄 수 있도록 함석으로 디근자 형태로 만들어 흙의 높이가 6mm 가 되도록 정확하게 만들면 아무리 작은 쥐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죽은 벌은 벌들이 잘 끌어내게 된다.

왕겨포장이나 짚 가지고 포장했을 때 쌀겨나 벼를 찾아먹기 위해서 벌들이 많이 서식하게 되는데 벌통 근처에 와서 쥐들이 다니면 벌들은 작은 진동이나 소리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결국 사람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과 같게 된다.

쥐약을 놓아서 잘 잡아 주어야 하겠고 이때 인근에 개나 고양이를 기를 경우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다시 먹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얘기를 해서 주의를 시키는 것이 좋다.

쥐약은 가끔씩 개나 고양이한테 2차적으로 피해가 적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끈끈이도 개한테는 큰 피해가 없게 되므로 쓰

다 남은 말벌킬러가 있다면 사용해도 되겠다.

특히 겨울철 내내 소문 앞을 짚이나 보온덮개 또는 스티로폼 등으로 가려 놓을 때 쥐가 서식하는 좋은 환경이 되므로 이때는 필히 쥐약을 여러 곳에 놓아 주어야 하겠다.

이때 소문 앞쪽이나 뒷쪽에 나와 있는 자동차 양 시키던 호스가 나와 있을 경우 쥐가 갇혀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맛이 있어서 갇아 먹지 않나 생각되며 쥐는 무엇이든지 자꾸 이빨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빨이 자꾸 자라는 지 갇는 습성이 있게 되어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됨을 볼 수가 있다.

4. 화재예방

일 년 내내 잘 길러 놓은 봉군이 화재로 불타 없어진다면 이보다 더 허무한 것을 없으리라 여겨진다.

특히 산불이 나서 옮겨 붙을 수 있는 장소라던가 아이들 불량난 할수 있는 곳은 주위를 깨끗이 청소해 놓고 때론 아침 일찍이나 저녁때 불이 빨리 번지지 못할 정도의 저기압일 때 미리 근처를 태워 버려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근처에 나무가 있을 경우 낙엽도 완전히 긁어서 제거해 주어야 하겠다.

일부 양봉인 중에는 전기가온 설치를 해서 월동을 시키게 되는데 전기선에 비하여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합선이 될 수가 있으며 또한 쥐가 전기선을 갇아서 합선이 되어서 불이 날 수도 있으므로 전기가온을 할 때는 인가 근처에 월동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되겠다 또한 누전차단기나 과전류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 집 근처에 하더라도 벌통에 붙은 불이 집으로나 창고 등으로 옮겨 붙지 않을 정도의 거리는 되어야 하겠다.

과거에 온상선을 가지고 가온기를 개인이 만들어 사용할 때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 산으로 불이 옮겨 붙어 벌 뿐만이 아닌 다른 화재로 인한 피해도 입은 사례가 있다. 대개 훈연기 재를 버린곳에서 불씨가 살아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비중이 높는데 방금 쓰던 훈연기는 불을 끌려고 재를 꺼내서 보관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세워 타 버리도록 하면 오히려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5. 밀원식재

이달 중순까지가 양봉인들에게는 밀원 심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는데 나무는 낙엽이 지고나면 월동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몇 일간 하게 된다.

그래서 낙엽이 지기 전에 나무를 심는 것은 빠르며 낙엽이 진 후 며칠 후부터 가을에 나무 심기를 시작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11월 중하순부터 12월 중하순 사이가 적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봄에는 양봉인들이 바빠서 심을 시간이 적지만 이달에는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제가 지난 가을에도 쉬나무를 300여주 심었는데 한 주도 죽지 않고 살았다.

봄보다는 가을철이 땅에 습기가 많아서 오히려 심기가 적당하지 않은가도 생각되었다. 그러나 음나무 등은 추위에 약하므로 3월경에 심는 것이 적기가 되겠는데 남부지역에서는 가을에 심어도 괜찮다고 한다.

나무를 심고 나서는 적절히 줄기를 잘라주면 활착률이 높아지는데 많은 가지가 있을 경우 이곳에 필요한 수분을 다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지를 할 경우 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잎이 넓은 음나무 같은 나무일수록 나중에 잎이 나오면 그 넓은 잎에서 수분증발이 많이 되다보니 수분이 다량 필요해서 활착이 되었다가도 여름에 죽는 경우가 발생되게 되므로 음나무는 심고서 반드시 뿌리만 남기고 줄기는 밑에서 바짝 잘라 주는 것이 활착을 돕는 방법이 되겠다.

씨앗으로 파종하여 묘목을 기른 것을 실생묘 뿌리를 짧게 잘라심어 뿌리에서 새순과 뿌리가 난 것을 근삼묘라고 하는데 가격 차이도 있지만 음나무는 근삼묘는 잔뿌리가 적어 활착률이 떨어지므로 필히 줄기를 잘라 주어야 하겠다.

침명굴이 있는 곳은 관리가 어려우므로 어느 나무도 심지 않는 것이 좋다.

6. 양봉기술의 습득 및 양봉업계 발전을 위한 지역별 좌담의 필요성

양봉인들에게는 이달이 일 년 중 제일 한가한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열리는 동계양봉대학을 통해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양봉기술교육에도 참여한다면 보다 더 높은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나의 부족한 기술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 양봉인을 찾아가 개인지도를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양봉인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 대부분 우리 업계에 대한 현안들을 얘기하게 될 텐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적어보니 참고하였으면 한다.

우리나라에 서양종 꿀벌이 들어 온지가 약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과거에는 벌관리 기술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고 일년 내내 무 보수로 일해주면서 배웠는데 벌도 가까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팔지도 아니했다. 이는 내 밀원이 침범 당하게 되고 또한 내가 꿀을 팔 곳에서 양봉을 함으로써 그만큼 경쟁자가 생겨 꿀을 팔 곳이 줄어들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벌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 94년도에 서양종이 30만군, 재래종이 33만군 정도이던 것이 올해로 서양종이 200만군으로 늘었고 재래종은 38만군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서양종 사육 봉군수가 우리나라 벌꿀소비 시장의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벌을 잘 늘이는 기술보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제 경유 가격이 l 당 1,000원이 넘고 있어 과거 휘발유 가격과 같은 가격이 되고 있다.

더욱이 아까시나무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내년도에 꿀이 잘 난다면 꿀 판매가 쉽지 않을 상황이다. 올 해 6월에 순수한 잡화꿀이 많이 생산 되었는데도 그 동안 사양꿀 생산자는 버젓이 생산하고 있고 내년에도 사양꿀을 많이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못하도록 지역 사회의 양봉인들이 견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잘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러한 얘기를 하느



냐고 하지만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고 꿀을 못 팔아서 내가 퇴출될 상황인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우리 양봉업계의 빈대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빈대를 잡지 않으면 내가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제 사양꿀 생산자 스스로 개과 천선하여 내년부터라도 불량벌꿀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다.

벌꿀이 남아돌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협회나 조합에서 많은 홍보비를 쏟아 부을 수 있는 돈이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전체 양봉인들이 내가 생산한 꿀을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을 스스로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가 자조금 제도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제나 기자재 무상지원 하는 것만 많이 타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육하는 봉군수 만큼이나 내가 생산한 벌꿀 만큼에 해당되는 홍보비를 스스로 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생산자 스스로 자조금 제도를 채택하여 돈을 걷을 경우 그 돈 만큼의 무상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양봉인들이 10억을 걷으면 10억 정도의 돈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지출하는 돈은 판매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걷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양돈, 낙농, 한우, 육계가 자조금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양봉업계야 말로 꿀이 남아돌 상황이 되어 있어 내년에라도 시급히 이 제도를 채택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본인도 요즈음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밀원식재나 고품질생산, 개방화시대의 생존전략 등 양봉업계에 닥친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증봉증식 분야는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유통명령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또한 생산자들이 생산량이 남아 돌 때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일부 폐기처분하여 나머지 좋은 것만 가지고 시장에 필요한 만큼 수량을 줄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농가소득을 높이는 제도인데 제주도에 있는 밀감 재

배 농가들이 이 제도를 유일하게 채택하여 올해 3년제 채택하여 30% 이상의 소득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 양봉업계도 꿀이 남아돈다면 유통명령제를 채택하여 불량벌꿀을 폐기처분한다면 불량벌꿀을 생산한 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고 그렇다면 생산할 리도 없을뿐더러 소비자들에게도 순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을 양봉인 스스로 폐기처분 했다고 매스컴을 탈 때 그동안 가졌던 벌꿀의 불신을 하루아침에 씻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우리 양봉인들이 앞으로 세계 양봉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밀원수를 심는 길밖에 없는데 지역 양봉인끼리 밀원수를 구입해서 이달 중에 땅이 열기 전에 공동으로 밀원수 심기 행사를 가지는 것도 매우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요즈음 씨앗을 채취할 수 있는 밀원수 중에는 모감주나무나 개가죽나무 등의 씨앗을 받아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든가 발이 있는 양봉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양봉사육군수가 포화상태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돈이 밀원수가 아닌 약품이나 기자재 등의 구입에 사용된다면 우리 양봉인 스스로 양봉업계를 망하는 곳에 정부돈을 축내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WTO, FTA협상 등으로 인하여 한우, 양계, 양육, 양파, 마늘, 고추 등 시장의 필요한 소비량보다 사육군수나 재배면적이 많아져 생산량이 많아지면 파동을 겪어 왔고 쌀도 이제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하락으로 재배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 양봉업계도 각 지역에 있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업계가 관세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밀원수나 양봉사 등 꼭 해야 할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기자재 지원정책을 펼쳐 간다면 먼 훗날에 돌이켜 볼 때 양봉업계의 지도자가 아닌 잘못 끌고 간 무능한 지도자로 낙인을 받을 것이다. 얼마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 회담에서도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밀원 심어도 늦은 상황에서 기자재 지원 받아서 10년 후에 양봉업계를 망한다고 할 때 무슨 가치가 되겠는가 누가 뭐래도 모든 지원은 밀원수 쪽으로만 지원 받도록 양봉인 스스로 요구하길 바라고 또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끌고 가길 바란다.

많은 양봉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자재 지원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원 받는 데도 우선 순위가 있게 되므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든가 부족한 사람은 설득하고 지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지도자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양봉업계의 현안이 쌓여 있는 것을 각 지역 양봉인들이 모일 기회가 있다면 좌담회를 통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도 어떠한 기술습득 못지않게 우리 업계를 지키고 또한 양봉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므로 겨울철 한

가한 시간을 좋은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협회고 조합이고 각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조합은 올해 조합장과 임원선거를 마쳤지만 협회는 얼마 있지 않으면 선출을 할 것으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양봉을 사랑하면서 보다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소신이 뚜렷하면서 맡은 일에 사심을 버리고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도 우리 양봉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후보들의 면면을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입수하여 장단점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보자 중 제일 나은 사람을 선출해야 하겠다.

지역이나 학연, 연고를 떠나 정작 양봉업계를 위한 일꾼을 뽑는 것이 나의 소득을 지키고 양봉업계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

감귤유통조절명령

제1조(목적) 이 유통조절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은 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이 명령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간) 이 명령은 2005년 11월 7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지역) 이 명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이 명령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제6조(출하조절의무) 이 명령이 발효되는 기간동안 횡경 51mm 이하와 71mm 이상, 1과 무게 57.47g이하와 135.14g이상(1번과 이하·9번과 이상)의 감귤, 강제착색감귤 및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8조에서 정하는 중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한다. 단, 가공용은 제외한다.

제7조(명령이행 확인방법 및 제재)

- 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단속 등 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는 제주도지사가 수행하며, 과태료 부과는 제주도 내에서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타 시·도 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